

일본 정부, 법인세율 인하 논의를 본격화

주요국 중 최고수준인 일본의 법인세율은 기업의 해외유출 및 대내 투자의 저해요인으로 지적되어 왔음. 이에 일본 정부는 법인세 인하를 통해 기업의 투자·고용을 촉진하고 성장률 제고와 세수인상으로 연계시키고자 하는 방안을 본격적으로 논의하는 중임.

□ 일본의 높은 법인세율은 기업의 해외유출 및 대내직접투자의 저해요인으로 작용

- 주요 선진국 및 신흥국 중에서 최고수준인 일본 법인세율은 기업의 해외유출을 조장하고 대내투자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음.
- 일본의 법인세 실효세율은 40%로 유럽 선진국(30%대), 한국(24.2%), 중국(25%), 홍콩(16.5%), 싱가포르(17%)에 비하면 현저히 높은 수준임.
- 국제경영개발연구소(IMD)의 세계경쟁력 순위에서 일본은 2009년 17위에서 2010년 27위로 급락하였는데 그 하나의 요인으로서 높은 법인세율이 지목되고 있음.

□ 일본 정부는 EU의 법인세 인하를 통한 성장률 제고사례를 벤치마킹

- 경제산업성은 EU의 사례분석을 통하여 법인세율 인하가 기업의 투자·고용을 촉진하고 성장률 제고와 증세로 연계되는 긍정적인 효과를 이끌어낸 점에 주목하고 있음.
- EU 15개국은 1995~2007년 동안 법인세의 실효세율을 37.7%에서 28.7%로 9포인트 인하함. 반면, 동 기간 명목 GDP 대비 법인세수 비중은 2.2%에서 3.2%로 상승함.
- 경제산업성은 법인세율과 성장률과의 상관관계를 살펴본 결과, EU 15개국 중 법인세율이 낮은 그룹이 높은 그룹에 비하여 성장률이 약 1% 높아지는 결과가 도출된 점을 강조함.

□ 다이이치생명연구소는 법인세 인하 정도에 따른 세수감소 및 경기 부양 효과를 시산·발표함.

- 법인세를 5% 인하할 경우, 기업의 투자·고용 촉진을 통하여 성장률을 제고함으로써, 10년 이후에는 총 GDP가 2조 1천억 엔 증대되는 효과가 발생
- 법인세를 10% 인하할 경우, 경제효과는 5% 인하시의 2배 이상 증가하여 10년 이후에 총 GDP가 4조 3천억 엔 증대되는 효과가 발생
- 법인세 감세에 따른 세수감소 효과는 시행 초년도를 기준으로 5%일 경우 4,830억 엔, 10%일 경우 9,650억 엔이 감소할 것으로 추계됨.
- 또한 법인세 감세를 통해 기업의 업적개선 효과가 발생한 결과,

세수는 9년 이후부터 감세 이전수준을 상회할 전망이다.

□ 향후 법인세 인하와 관련하여 시행시기 및 인하폭 정도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.

- 경제산업성은 5월 18일 ‘산업구조 비전’ 기본방침안을 통해 현행 법인세율을 2011년도부터 5% 정도 인하하는 방침을 정부세제조사회(회장 칸나오토 부총리·재무장관)에 제시함.
- 한편, 세수부족에 시달리고 있는 재정상황을 고려할 때, 법인세율에 대한 인하폭과 인하시기는 단계적으로 시행해야 한다는 지적도 강하게 제기되고 있음.

<참고자료>

日本經濟新聞(2010.5.25). 「法人税減税,2兆円効果GDP引き上げ5%の場合」

日本經濟新聞(2010.5.17). 「法人税下げを提言」

日本經濟新聞(2010.5.18). 「法人税下げ成長率高く」